 금융위원회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2017.10.26(목) 15:00 이후	배포	2017.10.26(목)	
책 임 자	금융위 국제협력팀장 이 진 수(02-2100-2890)	담 당 자	이 지 현 사무관 (02-2100-2891)		

제 목 : 「금융중심지 활성화 TF」 제1차 Kick-off 회의 개최

- 금융중심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. -

1. 회의 개요

-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정책의 모멘텀을 확충하고, 변화된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금융중심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기관, 전문가 등과 함께 「금융중심지 활성화 TF」를 구성하여 금일(10.26)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

* (시간) 14:00~15:00, (장소) 정부종합청사 2층 회의실

- 금번 TF는 민간의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(이하 금추위) 민간위원인 DBS은행 방효진 대표를 단장으로 하고, 금추위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회사의 한국대표들도 포함하는 등 민간 주도의 TF로 구성
- 또한 유관기관, 연구기관, 금융위·금감원·지자체(서울시·부산시) 등 관계기관이 폭넓게 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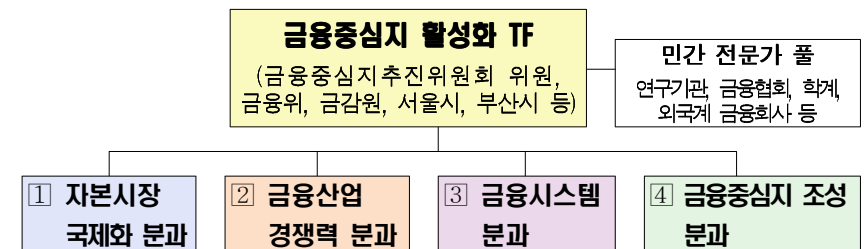
※ 「금융중심지 활성화 TF」 주요 참석자

- (정부) 금융위, 서울시, 부산시
 - (유관기관) 금감원, 은행연합회, 금융투자협회, 한국거래소
 - (연구기관) 금융연구원, 자본시장연구원, 보험연구원
 -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,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* 등
- * 에이스 아메리칸 화재해상 Edward Kopp 대표, 매트라이프 생명보험 Damien Green 대표, 맥쿼리 증권 John Walker 회장

2. 논의 내용

- TF 참석자들은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와 추진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
 - ① (금투협회)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하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
 - ② (금융위)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등 변화된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 소개
 - ③ (금감원) 그간 간담회, 면담, 해외 IR 등을 통해 접수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주요 건의사항을 소개하고,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제안
 - 한편, 금융위는 금일 참석자들이 제기한 개선과제들을 바탕으로 향후 TF의 추진과제를 설정하고, 분과별 활동을 통해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
 - 특히, 서울·부산 지자체별 특화전략을 수립하고,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하여 적극 협업하기로 함
 - 또한 既수립한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과 함께 금융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·보완*할 예정
- * 과거와 달리 금융환경이 빠르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시 조정·보완이 필요

《 금융중심지 활성화 TF 체계도 》



3. 향후 계획

- ☐ 매월 1회씩 TF를 운영하고, 분과별 활동은 신속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격주 단위로 운영할 계획
 -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을 분과 활동을 통해 보다 구체화하고,
 - 차기 TF에서는 변화된 글로벌 금융환경을 반영한 서울·부산 금융중심지의 특화전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
- ☐ 금추위 민간위원으로서 TF의 단장을 맡은 DBS은행의 방효진 대표는 금번 TF가 민간의 관점을 바탕으로 금융중심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,
 -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·부산 금융중심지가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